

약속 -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와 '지금 여기'를

오롯이 살아 내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16-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마태복음 28장 18-20절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이 있는 길

우리는 계속해서 헨리 나우웬의 [예수의 길]을 따라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계속해서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어느 길이 있는 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차선을 타고 가야 하는 지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표지판 사진)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표지판을 지나는 순간 우리가 원했던 곳에 도착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다음 표지판에는 거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또 다른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표지판 사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의 길]역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표지판을 따라 계속 가다보면 원하는 곳에 다다르게 될 것이며, 그 길로 가는 중에 지켜야 할 신호와 규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의 길]에는 '약속'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으며, 이런 설명이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와 '지금 여기'를 오롯이 살아 내다)

문제는 일반 도로에서는 목적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지만, 예수의 길에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지판인 약속이 존재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사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번주는 특별히 성 금요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순절도, 오순절도, 성 금요일도 목적지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절기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의 길]로 향하는 여정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같으면 지도를 그려주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지만, 요즘은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중간에 거쳐 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따라가면 됩니다.

중간 중간 실수로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만 분명하게 입력되어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이 다시 계산하고 우리에게 변경된 길로 가게 하지만 올바른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때때로 부족하고 실수 하지만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지라도 그 여정에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그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니, [예수의 길]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이 길이 힘든 것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첫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부족했어~ 그래서 서툴렀어~

우리가 가는 예수의 길이 우리 인생의 초행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의 길을 완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간 사람이 약속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운전하는 것과 많은 비유를 했습니다. 초보운전이 초행길을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많이 긴장되고 실수하고 헛갈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찍어놓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길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네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지도와 표지판을 의지하던 때 였죠. 아마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장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카고 일리노이인데, 아무리 표지판을 보고 가도 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봤던 표지판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참을 가다 보니 전혀 보지 못하던 장소에

있더군요. 내려서 물어보니, 일리노이를 벗어나 위스콘신 주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할 곳이 명확하니, 사람들에게 묻고 지도를 보면서 다시 되짚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시작한 우리의 인생여정에서 당혹스러운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너무 당황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과 가야할 길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1291 주의 길을 가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 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 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 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리
 모진바람 앞길을 가 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리
 이 길 은 영광 의 길 이 길 은 승리 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님 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 리 라 주의 길을 가 리 라
 주님 발자 취 따 라 나는 가 리 라
 나는 가 리 라 주의 길을 가 리 라
 주님 발자 취 따 라 나는 가 리 라

— 김 석 균 詞·曲 —

최지원 집사

이전 챕터에서 헨리 나우웬이 말한 ‘기쁨’은 마지막 장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출6:2)’

저자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자’라고 설명해줍니다. (pg151)

하나님의 이름이 곧 약속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만나교회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 정삼희 목사님이 하신 주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옆에서 함께 사셨고, (헨리 나우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조금도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헨리 나우웬의 말대로 그분이 내 안에 한 몸처럼 사십니다. 이제 우리 숨결 속에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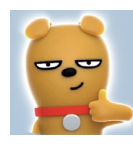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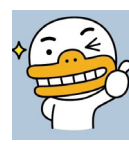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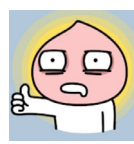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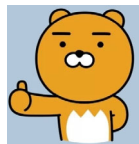
떠남은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나면 대신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자는 지난 챕터에서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함께 했던 예수님의 떠남은 큰 슬픔이자 동시에 절망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슬픔 안에 '내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슬픔을 '진짜 기쁨'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환상이 아닌 이 실재적 신비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 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지만 가끔 초등학교 학생 같은 혼잣말을 합니다.

"하나님 천재!!!"

만약 하나님이 sns 계정이 있으시다면 제게 있는 모든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이없어 하시겠지만 이렇게.. ^^;;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반쪽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앞에 헨리 나우웬은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기도들은 거창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실재적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연습해야 하는 훈련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김을 통해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섬김은 당신 안에 주어진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표현이다" (pg171)

챔버스의 습관 시리즈를 묵상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습관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으며 그것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 섬김을 통해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삶..

챔버스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하며 (주나최 5/15)

헨리 나우웬은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삶의 의미이자 핵심(pg173)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수요 설교 말씀(6/30)을 들으며 책으로 묵상한 것을 다시 말씀으로 확증해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귀하지만 변화산에서 계속 머물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십자가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주님을 따라 이웃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최은경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기도와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저를 깨우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식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들의 여정에 동행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숨결 속에 계셔서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친밀감'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만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숨을 내쉬는지 들이마시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늘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숨결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단어 ‘프뉴마’는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나는 너희에게 내 숨결을 보낼 수 있고 너희는 너희 안의 내 생명을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야 비로소 깨닫는다. 바로 이런 뜻이다. ‘내가 너희와 아주 긴밀하게 함께 하므로 너희와 나는 하나다. 너희는 내 숨결을 호흡하며 ’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참 신비로운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님의 ‘부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꺼야!”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 부재를 통해 계시되는 임재

임재의 경험은 꼭 같이 있을 때 뿐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더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신비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가족과 헤어져 지냄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됩니다. 떨어져 있기만 더욱 친밀해 집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을 누구나 다 경험 하는 일입니다. 훈련소에서 생각만 가진다면 그런 효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간절해 질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처음 중국 단기 선교여행을 갈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5년 전 일이니 지금의 중국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인천에서 단둥으로 가는 배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릴 때,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었는지 모릅니다.

평범하던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때, 또한 늘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부재의 상황 가운데서 더 깊은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예도 가능할 것입니다.

누군가 아픈 친구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은 짧지만, 다녀간 후에도 그 기억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있던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야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떠난 뒤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재를 통한 임재를 가장 깊이 보여 주는 예는 죽음일 것이다. 우리의 죽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그렇다. 나는 사별한 사람과의 사랑도 자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살아생전에는 서로를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 신아의 사람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서로를 새롭게 알게 된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형제자매여, 내가 죽어서 떠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이 나를 새롭게 발견할 테니 말입니다. 죽어서도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분이 죽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없이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다닐 수는 없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다. 그 때는 불가능한 말이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고백하는 이들은 이제 각 세계로 흩어져,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시공을 초월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2. 미래를 계시해 주는 임재

하나님이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래를 현재에서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말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삶을 앞당겨 살라는 속삭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내년에 벌어진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하나님과 동행할 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

다. 미래는 가장 충실한 현재에서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인내’라는 놀라운 단어를 만난다. 인내란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순간에 충실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현재가 아닌 미래를 꿈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내게 아무런 이미가 없어 내일이든 내년이든 빨리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고, 일자리가 생기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어 놓은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돌아가 그 씨앗을 파내어 보지 않습니다. 자꾸 들춰내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온전히 현재를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삶의 비결은 현재의 자리에서 성령의 숨결에 주목하면서 그 분이 불어넣으실 새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3.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다. 기도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분 앞에 앉아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잡념이란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잡아끌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새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이나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한다. 오직 온전히 여기에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기 싫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집니다.

과거의 불쾌한 경험들이 자꾸 생각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는 자꾸 과거나 미래로 조금씩 찾아 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알기에 지도 더욱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음도 압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 앉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이름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내주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매번 느껴지거나 경험되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느끼지 않아도 제가 숨 쉬고 있음을 알듯이 매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

또 다른 하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대한 일 일수도 있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다른 이들에 대한 주의력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하므로 우리 안에 염려가 덜 해지면 질수록 더 많은 관심을 다른 이에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이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친밀함으로 서로 끌리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큰 보상 가운데 하나다. 당신 안의 성령이 그들 안의 성령을 보신다. 당신 안의 하나님 마음이 그들 안의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성령은 성령께 말씀하시고, 마음은 마음에게 말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을 위해 일하시고 성령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찬양하며 섬기기 시작할 때, 참 좋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인해 기뻐합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기쁨과 감가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섬김은 어떤 결과를 얻어 내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욕구로 초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섬김’이란 어떤 변화가 보장 된다는 조건 아래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섬김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금세 원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반면에 섬김이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면 무리하지 않고도 홀가분하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섬김은 당신 안에 주어진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표현이다.“